## 투데이 칼럼

# 숙종의 여인 장희빈

정 복 규
논설위원

장희빈(張禧嬪)은 1659년 역관 장형의 딸로 태어났다. 본관은 인동(仁同), 어릴 때 이름은 옥정이다. 조선 19대 왕 숙종의 빈이다. 그녀는 악독한 요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권력 투쟁 속에서 사랑과 고통, 갈등과 희망을 한 몸에 품었던 역사의 희생자였다. 어머니 윤씨는 조사석의 처잣집 여종이었다. 장형의 본처 고씨에게 맏아들 장희식을 얻었고, 그녀가 요절하자 윤씨와 재혼하여 1남 2녀를 얻었다.

9살 많은 언니와 오빠 장희재 뒤에 태어난 막내가 장옥정이다. 옥정은 어머니가 천민이어서 모계를 따라 역시 천민 신분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영특했던 그녀는 어머니에게 결코 천민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뛰어난 미모를 갖추어 경국지색(傾國之色)이란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궁중의 나인으로 들어갔다. 장옥정이 근무했던 대왕대비전은 임금이 매일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는 곳이다.

아리따운 그녀의 자태는 숙종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향후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미인계를 획책한 남인 일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람둥이 숙종은 어머니 명성대비의 국상기간이 끝난 지 불과 닷새 만에 장옥정을 입궐시켰다. 그녀를 위해 창경궁 북쪽에 취선당이란 별당을 지어주었다. 그때부터 장옥정은 천부적인 교태를 무기로 젊은 왕을 사로잡았다.

서인 가문 출신의 중전 인현왕후는 그 무렵 숙종의 외면으로 회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반면 정2품 소의(昭儀)로 책봉된 장옥정은 왕자 윤(경종)을 낳았다. 신료들은 정비인 인현왕후가 아직 21세로 젊은데 국본을 서둘러 확정함은 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숙종은 왕비 인현왕후 민씨를 폐출하여 사가로 내쫓았다. 폐출의 절차가 마무리되자 숙종은 곧바로 장희빈을 왕비로 삼는다는 전교를 내렸다.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고 장씨의 책봉례를 치렀다.

천출이었던 장희빈은 일국의 국모로서, 장차 국왕의 모후로서 거칠 것이 없는 신분이 되었다. 조선왕조 5백 년 동안 미천한 여종의 딸이자 궁녀가 당대에 왕비로 책봉된 예는 장옥정이 유일했다.

그러나 인현왕후가 폐출된 뒤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총애가 점차 식어갔다. 나이 서른이 넘어 미색이 퇴조한 데다 중전으로서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전은 사대부가의 오랜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궁인들에게 왕후로서의 모범을 보이면서 내명부를 통솔하는 자리다.

하지만 중인 가문에서 자라난 장희빈에게 그런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장희빈에게 실망한 숙종은 밤마다 궐내를 배회하며 외로움을 달랬다. 폐출한 인현왕후의 단아한 행동거지가 눈에 어른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숙종은 인현왕후의 시녀였던 나인 최씨가 왕비의 생신을 맞아 몰래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나인 최씨는 바로 영조의 어머니이자 정조의 증조할머니인 숙빈 최씨다.

숙종은 착하고 순종적인 최씨를 후궁으로 들어앉혔다. 조정이 서인 일색으로 채워지자 폐비 문제도 다시 거론되었다. 양심에 가책을 느낀 숙종은 인현왕후에게 손수 편지를 쓰고 입궁하도록 했다.

반면 중전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하여 취선당으로 쫓아냈다. 장희빈의 무기는 세자의 생모라는 지위 하나뿐이었다. 설사가상으로 숙빈 최씨가 왕자 이금(훗날 영조)을 낳자 장희빈은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장희빈은 궐내에 무당을 불러들여 중전에 대한 저주의식을 행했다. 결국 인현왕후 민씨는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숙빈이 숙종에게 고해 바쳤다.

취선당 근처에서 중전을 저주하기 위한 신당이 발견되었고, 주변에서 죽은 새, 쥐, 붕어 등 각종 저주용품들이 발견되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다. 그녀의 나이 43세였다.

## 사설

### 지방의원 잇단 물의

도내 지방의원들의 잇단 일탈 행동을 막을 방법이 갈수록 절실하다. 징계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처벌 범위와 수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북의 지방의원은 2명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정지에 그쳤다. 객관적인 감사와 징계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방의원의 일탈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자체 윤리특별위원회뿐이다. 결국 징계 심의가 동료 의원들에게 맡겨진 셈이다. 자정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위원 참여와 회의록 공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리위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고 또 윤리위 역시 상임위처럼 정기적으로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족 경영 회사의 전주시 수의계약으로 지난 2022년 감사원에 적발된 이 모 전 주시의원은 당시 처분은 받지 않았다.

겸직 신고와 이해충돌 금지 조항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명확한 책임을 묻기 위해 처벌 범위와 수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어기지 말라는 조례는 제정돼 있어도 그 조례를 어겼을 때 징계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사업과 예산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청렴도와 투명성 문제도 제기된다.

고위 공직자 공직윤리시스템 정보 공개처럼 지방의원도 겸직 신고와 상임위 정보, 징계 결과 등을 일원화하고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삼진 아웃제나 당 차원의 선출직 평가위원회 활성화, 윤리위 패스트트랙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다. 커지는 지방의원 권한에 상응하게 윤리적 책임을 지우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 언제 대통령 결별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인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자, 국민의힘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결별이 확실해 보이는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을 향해 거친 공세를 이어갔다. "수사가 부족하다며 구속 기한 연장을 요청했던 검찰이 이제 와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며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최고의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 '조기대선'은 아직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금기어'다.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바라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 기류는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해 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소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다"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기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시점을 못 박아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2월 중순 전에는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전망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까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여권의 대선 시계도 속도가 빨라졌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기소를 기점으로, 중도 확장에 무게를 두고 조기 대선을 준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의 결별은 결국 시간문제일 거라는 분석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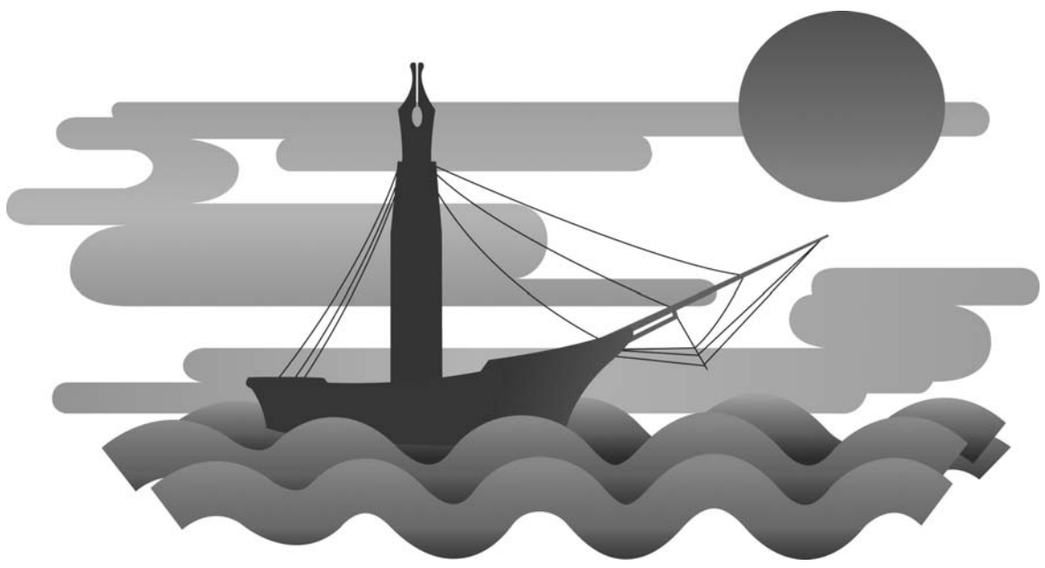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마크롱 '시리아 재건 위해 5천만 유로 지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시리아 지원 국제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리아 재건을 위해 5천만 유로(약 755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미키 17' 월드 시사회 도착한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이 지난 1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화 '미키 17' 월드 시사회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